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오전 11시		
교회소식		인도자
9월의기도	환우를 위한 기도	다같이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 79) 크고 놀라운 사랑 은혜 아무 것도 두려워말라	다같이
기도인도		인도자
봉헌*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다같이
말씀교독	사도행전 19:21-41	다같이
특별찬양	주 날 인도하시네	샤마임찬양대
말씀선포	“빛으로 걸어가면”	김원재
찬양과결단*	하늘 가는 밝은 길이(찬 493)	다같이
축도*		인도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9월의 기도는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환우를 위한 어떤 기도제목들이라도 교역자에게 전달해주시면 마지막 주일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공동의회**가 오늘(9/19) 예배 후에 있습니다.
4. **교적카드**를 개인별로 오늘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큐티책 10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문의 - 박순정)
6. **중보기도팀**이 다음 주일(9/26) 예배 후에 새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문의 - 정주애, 양명철)
7. **새가족모임**이 오늘 12시 30분에 지하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8. **살공부**가 오늘 1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9. **한성욱 목사**가 9월까지 사역 하고 사임을 합니다.
10. 9월부터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월~토" 영상새벽기도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새벽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월 두번째 토요일 새벽기도회는 **"온가족새벽예배"**로 드립니다.
12.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3.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101.5 / HD Radio FM 93.5-4 토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 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정답은 없지만

한 성도님이 현장 새벽기도회에 목장별 특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달해주셨습니다. 현장 새벽기도회가 목~토 이렇게 시작하며 제가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참석률이 저조한 것을 보며 그 성도님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성도님의 그 생각은 저의 고민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고민을 합니다.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이 신앙의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앙 훈련에 스스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지난 목요일(9/16) 새벽기도회를 드리며 저는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 목요일 새벽기도회에 영상으로 11명, 현장새벽기도회에 6명이 출석을 했는데, 현장 참석자 중 교역자 4명을 제외하면, 제 아내와 한 형제님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필수적으로, 성도들은 선택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은 새벽기도회에 나오도록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새벽기도회 참석자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저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혹시 내가 택한 방법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지나온 교회는 대부분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인들을 신앙 훈련의 장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성도들의 경험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런 적극적인 훈련을 그리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게 건의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에 그런 훈련의 결과가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을 낳았다고 평가합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교인들을 동원해서 훈련을 하지만, 그런 목회자가 사라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교인들은 오히려 소극적 신앙인이 되는 모습을 주관적,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이 바로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보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자신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양산된 것이 그 결과입니다.

금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시간에 저는 이 고민을 주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기도회 시간에 주님은 답을 주신듯 합니다. 비대면 9명, 현장 참석 15명... BTS 새벽기도회를 제외하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 참석보다 현장 참석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자율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신앙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고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